

# “못 들어갑니다” 또 택배대란 터져

반복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200여 개  
고덕동 한 아파트, 후문 앞 1000여개 쌓여  
“지하주차장으로” vs “차량 커 못 들어가”  
“차량을 바꿔라” vs “아파트 한곳 때문에?”

지난주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 다양한 크기의 택배상자 수천개가 길바닥에 널브러진 채 쌓여 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이 아파트가 이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신축 지상공원형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모든 도로를 보도블록으로 깔아 애초부터 지상 차량 출입을 제한하게 돼 있다는 게 아파트 측의 설명이다. 택배 차량 등이 다니면 보도 등 시설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이들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아파트 측은 혼란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했고, 다만 설 연휴 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긴급차량이나 이사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택배 등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아파트 일부 택배 기사들의 차량이 크기 문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다. 이보다 큰 트럭이나 탑차를 이용하는 택배 기사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높이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 회사들이 2.3m 높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탑차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차량을 바꾸는 비용은 기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한 아파트를 위해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파트 자체가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기 때문에, 지난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택배기사 측에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그에 맞게 차량을 바꿔줘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까지도 택배차량은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택배기사 측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탑차량으로 바꾸는 비용은 택배 노동자가 직접 짊어지기 때문에 자가 부담”이라며 “한 아파트를 위해서 차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손수 레로 나르게 된다면 기사의 근무시간



최근 '택배대란'이 일어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가 놓여있다.

과 노동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택배기사들이 후문 쪽에 박스들을 두고 가면서 약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선 곧바로 ‘택배 대란’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아파트 후문 근처에는 택배 상자 1000여개가 층층이 쌓여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택배 박스를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신축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상 차량 출입 조치로 인한 택배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4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난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한해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2.7m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정부 규정 변경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택배사와 아파트 주민 간의 견 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앞 택배 보관함을 따로 만들거나, 큰 차를 모는 택배기사들에 한해서는 출입을 허용해주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회의와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담양소방, “골든타임 사수하라!” 현장 대응능력 연마

담양소방서장(서장 박상래)은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증가로 인한 가상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팀 단위 현장대응능력 연마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 △각 부서별 건물에 대한 특성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토론식 도상훈련 및 상황별 전술훈련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무각본 현지 적응훈련 등이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속적인 자체 소방훈련을 통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강화에 힘쓸 것이며 훈련 중 훈련 땀방울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코로나19 상황 하 효과적인 비대면 단계별 훈련 등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지역방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안도해경, 의식없고 쓰러진 환자 발견해 구조

안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4월 1일 오후 1시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재 땅굴항 주변을 순찰 중 땅굴여객터미널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해 조동조치 후 긴급이송 시켰다고 밝혔다.

안도해경에 따르면, 나재원 경사 등 4명이 긴급출동 후 복귀하던 중 여객선 매표소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힌 A씨(여, 55년생)를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구토를 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당황한 환자의 배우자가 심장마비로 오인하여 흉부압박 실시 중이었으나 해양경찰 순찰팀이 환자 의식과 호흡이 정상임을 확인,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흉부압박을 중지시킨 후 119에 상황 설명과 인계를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을 했다.

현재 A씨는 해남소재병원으로 긴급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손აკ을 다루는 긴급상황에서 땅굴여객소 해경과 소방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안도=이민혁기자

## 여수소방, 빗길속 교통사고 인명구조에 나서

여수소방서(서장 김정수)는 4일 소라면 여수공항 인근도로에서 차대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요구구조 4명을 응급구조 후 구조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소방서 부대장(소방장 김경민)은 “빗길운전은 평소보다 자동차가 물에 덮인 노상을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갑자기 조종성을 잃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비로 인해 운전 중 시야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증가한다며 빗길 운전 시에는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은 무리하게 사고자를 구조하려 하지 말고 사고차량 후미에 삼각대나 경광봉 등으로 접근중인 차량을 통제해 2차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면서 119구조대원들이 올 때 까지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사고자의 부상악화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강진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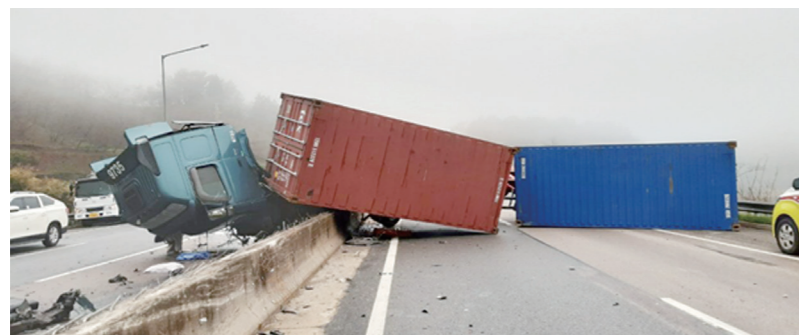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3월31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해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순천 호남고속도로서 25t 트레일러 전도...상행선 정체



5일 오전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 방면 7km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넘어져 상행선도로가 막힌 가운데 사고 현장 경리가 진행되고 있다.

5일 오전 6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 방면 7km

## 20대 트레일러운전자, 허리통증 호소...병원 입원

지점을 달리던 25t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해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2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순천~광주 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를 막고 있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순천경찰서와 순천소방서는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

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1·2차로를 통제한 뒤 중앙방벽 등 5대와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크레인 등 중장비는 사고 차량과 도로에 떨어진 컨테이너를 옮겨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했다.

순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